

01 교회소식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꿈나무 ~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만민 꿈나무들의 행복한 잔치,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치료하시는 하나님(2)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악한 영들의 역할과 질서

수많은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허락하신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04 간증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재창조됩니다!”

30여 년 경찰생활을 통해 체험한 영의 세계에 대해 전하는 전종익 장로와 손자의 혈우병이 치료된 페루 에바 쿠나나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800호 2017년 8월 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될래요”

아동주일학교 주최 ‘2017 여름성경학교’



아동주일학교 주최 ‘2017 여름성경학교’가 ‘권능’(요 14:12)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 30일(주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8월 2일(수)까지 4일간 열렸다. GCN방송을 통해 국내외에 생방송 되는 가운데 대전, 구미, 동광주, 무안, 천안, 광주, 서산, 새광주, 포항, 속초, 경주, 원주, 안성, 대구 등 전국 지교회에서도 함께했다.

첫째 날 개강예배 시 감사 이수진 목사(사진 1)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권능의 기초적인 의미인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하면서 “목자를 통해 이런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 오전, ‘말씀과 기도’ 시간에 감사 이미영 목사(사진 4)는 화상을 치료받은 이재우 어린이(동광주만민교회)의 권능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권능을 나타내기까지 목자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선을 행하며 순종으로 나오는 어린이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셋째 날 오전, ‘제10회 만민아동예술제’에서는 대상에

재즈댄스 ‘권능주니어’팀(구미만민교회), 금상은 리본체조 ‘홀리파이어’팀, 은상은 성극 ‘재창조의 권능’팀, 동상은 악기 ‘사이닝앙상블’팀(이상 본교회)이 수상했다.

대상 팀을 배출한 구미만민교회 한은지 전도사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 황달을 치료받는 등 아이들 모두 목자의 권능을 체험했기에 스스로가 대상을 목표로 열심히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날 오후에는 감사 이희선 목사(사진 3)가 인도하는 ‘파워 지저스’가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牧사는 상대를 배려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전한 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충만하게 찬양을 인도했다. 끝으로 ‘JESUS’ 곡으로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

넷째 날 오전에는 ‘성령충만기도회’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사진 2)을 강사로 있었다. 이복님 원장은 교사들의 연기로 상황극을 보여주면서 비진리의 마음을 버려야 할 것을 전했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어 기도해 주었다. 아이들은 짜증, 감정, 비진리의 말과 행동

등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선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기를 소망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아동주일학교 교장 조민경 전도사(사진 5)는 “적합한 날씨 속에 진행된 금번 여름성경학교는 영의 세계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영적인 어린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한 무안 단물 안에서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단물수족관 관람을 비롯, 이재록 목사가 인도한 해외 연합대성회를 되짚어 보는 등 권능을 보고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권능’이라는 주제 아래 준비된 공과를 비롯하여 볼풀놀이, 성극, 노아의 방주 만들기, 간증, 권능올림픽,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어린이 등 학년별 및 연합 활동이 병행되어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가라사대 너희가 ...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26)

치료하시는 하나님 (2)

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하고 성령받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질병은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즉시 깨끗함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미 주님을 영접했다면 참 믿음이 아니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며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여 성령의 역사로 치료받았다 하면 의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방법을 의뢰하지는 않습니까?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되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이 많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존하지요. 세상 방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한 경우,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병을 치료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3)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지요. 잠언 8장 13절 전반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요일 2:4).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계명들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

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것 등을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거두려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축복받기를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곧 시간과 노력, 정성의 씨를 심어야 하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충성도 심어야 하고, 십일조, 감사 등 예물로도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나 액수를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향을 받으십니다. 믿음과 정성, 사랑의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응답받을 문제가 없을 때도 부지런히 씩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드릴까? 어찌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며 예물을 드리지요. 그럴 때 심은 대로, 또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특별히 응답받고 치료받아야 할 기도제목이 있다면 더욱 정성스럽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 안에서 치료받았다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후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보혈을 흘려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미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구했으면 이미 나왔다고 고백하며 기뻐하

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응답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응답받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받은 즉시 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딘 듯 보이지요. 각자의 마음과 상황에 따라 달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사람이라면 당장 믿음이 부족해도 바로 응답받는 반면, 믿음의 성장에 따라 조금씩 차도를 보이거나 믿음이 더 성장한 후에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근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받았다 해도 다시 죄를 짓는다면 질병에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지요. 곧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어도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더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같은 죄를 반복해 짓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치료와 응답을 주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삶이 마치면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어 들어십니다.

이처럼 치료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신속히 헐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 “여호와와 손이 짝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으로 인해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영의 공간에 수많은 영적 존재를 창조하시고 영의 세계를 만드셨다. 한편,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에 필요한 악한 영들의 세계도 허락하셨다.

루시퍼의 반란으로 허락된 악한 영들의 세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의 세계는 무수한 천사와 그룹이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질서가 잘 잡혀 있었다. 특히 성부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퍼 천사장은 다른 천사들과 달리 인성을 지녔기에 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감미로운 말로써 즐겁게 해드렸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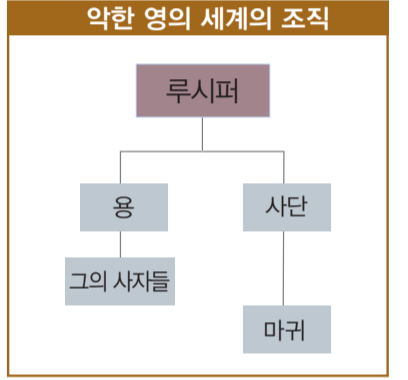
랑하셔서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러나 인성을 지닌 루시퍼 천사장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급기야는 영적 존재들을 규합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벌였다.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던 용들과 천사 중 삼분의 일, 수많은 그룹이 동참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모두 무저갱에 갇히고 말았다.

천지창조 첫째 날 밤,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무저갱에 갇힌 루시퍼와 용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 일부를 풀어주셨다. 천지창조 둘째 날, 공창을 만드신 후에는 그들이 거할 처소를 허락해 주시니 무저갱에서 풀려난 루시퍼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악한 영들의 세계를 조직할 수 있었다.

루시퍼를 중심으로 한 악한 영들의 역할과 질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는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두 부류로 나뉜다. 루시퍼가 명령을 내리면, 용들을 통해 그의 사자들에게 전달되는 명령 체계와 사단을 통해 마귀에게 전달되는 명령 체계가 있다. 그런데 루시퍼는 용의 사자들을 마귀보다 높게 해 주었다.

이는 루시퍼가 반란을 계획할 때 용들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약속한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째 하늘에 처소가 허락된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는 마귀의 서열이 가장 낮다. 물론 마귀보다 귀신은 더 낮은 서열이지만, 근본적으로 귀신은 악한 영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한다.



1)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는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어둠의 흐름을 이끌어간다. 세상 문화, 특히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며, 영향을 받은 세상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루시퍼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갈수록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 화장법이 자극적인 것도 그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세속적인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을 죄에 쉽게 몰들게 하고, 세상 권세자들을 사주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도 한다.

이 밖에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든다.

2) 용과 그의 사자들

루시퍼가 용들을 통해 역사하면 용들은 그의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렇다고 용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일이 루시퍼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루시퍼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용에게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락한 루시퍼가 경배받기 원하는 것처럼 타락한 용들도 그 마음이 있어

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주관하여 곳곳에 용의 문양을 새기거나 조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왔던 것이다.

루시퍼의 반란 시 용을 따랐던 그룹들 중 일부가 용의 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흉측한 짐승의 형상으로 변형되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동물들이 바로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았다. 용의 사자들의 역사로 인해 온 질병은 치료될 때 영안이 열려 보면 그 몸에서 쥐 떼나 집게벌레, 지네, 돼지, 새 등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타락한 용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살인, 인신매매 등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용의 사자들 중에서도 어떤 짐승의 사주를 받느냐에 따라 포악함과 간사함, 더러움과 추함, 난잡함 등 각기 그 특성이 다르기에 나타나는 악의 모양이 다른 것이다.

3) 사단과 마귀

타락한 루시퍼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

을 갖게 하며, 질병을 가져다주는 등 해(害)를 가한다. 자신의 마음과 능력을 계속 공중에 퍼뜨려 주파수가 맞춰진 사람에게 '생각'을 통해 어둠의 능력을 불어넣는다. 이때 수신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와 욕의 속성들이다.

반면, 비진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다(요일 3:8).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대가로 시험환난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사람에게 직접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사단의 역사로 비진리의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서 비진리가 요동하는 사람에게 그 죄성을 부추겨 결국 비진리의 행함 곧 육체의 일(갈 5:19~21)을 행하게 한다.

이처럼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뿐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임을 밝히 깨달아 늘 굳건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엡 6:10~13).



8 2017 SUMMER 8/6~8/12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뜻 1 • 천국 27-33
- 3차 영혼육 5-8
- 육체의 결여 1-3
- 믿음의 분량 14-17
- 창세기 강해 50-56
- 요한일서 강해 26-28

GCN TV 설교

- 치료하는 여호와 2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69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29 (신동초 목사)
- MIS강의 77 (정구영 목사)
- 사랑 2 (김수정 목사)
- 축복의 토대 (천우진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혜보게 14)
- 권능 스페셜 8 • 마지막 때 7
- 창조와 과학 25 • English 7
- 모두 드려요 32 • 내 마음의 찬양 4
- 알콩달콩 여여쁜 울동 73
- 옛날 옛적에 (시즌2) 3

해외성회 및 특집 프로그램

- 2017 만민하게수련회 (생방송)
- 페루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6

전국 어디서나 **alleg tv 882번**

세계 어디서나 **RokuTV**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목자의 권능, 놀랍습니다!”

전중익 장로 (경찰선교회 회장)

지난 6월 30일,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는 저는 2017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적으로 그동안 40여 회의 표상을 받았지요.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제가 한 그 이상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993년 11월,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고 몇 년 뒤의 일입니다. 조계사 사태를 진압하던 중, 사다리차가 뒤집히는 사고로 15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치지 않고 보호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선한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게 되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이런 저런 일들을 겪노라면 제 의가 발동되어 감정과 혈기 날 일들이 종종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경찰서에 온 사람들을 대할 때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분들에게 “물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물로 드릴까요, 찬물로 드릴까요?” 물으며 진심으로 대하니 아주 작은 행함에도 감동을 받았고, 제 손을 붙잡고 영영 우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장에 들어온 한 사람이 난동을 부려 직원 열 명이 통제하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들 듯하였는데 당시 소리를 지르며 병뚜껑, 주전자 뚜껑을 씹어 먹기도 하였지요. 이때 감사하게도 정신질환이나 귀신들린 사람, 그리고 사냥개 짖어대는 개에 이르기까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사진을 두려워했다는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장님 사진을 들고 그

를 만나기 위해 유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방금 전까지 고향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그가 당회장님 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두려워하던 구석에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해 주고,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도 해 주며 주의 사랑으로 대해 주었지요. 결국 그도 변화되어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사팀장님이 주신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

다. 재소자들에게도 전해 돌려 읽고 있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라고 적혀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여자 분이 10여 년 동안 빈집에서 기거하며 불을 지르는 등 이웃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상부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했지요. 또한 이분에게 다가가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고 당회장님의 신앙 간증수기를 전달하며 식사로 섬기는 등 관심을 가지고 영육간에 살피드렸습니다. 이분은 결국 7개월

만에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을 뿐 아니라 도저히 아니 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목자의 권능으로는 능히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했지요. 노력지만은 않은 경찰 업무이지만 생명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 목자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선과 사랑을 깨우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혈우병을 치료받아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됐어요”

올해 아홉 살인 제 손자, 빠블로 살레스는 5년 전 혈우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응고인자의 결핍으로 한번 상처가 나 출혈이 시작되면 멈추지 않으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이지요. 어느 날 빠블로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 팔을 다쳤을 때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맥과 모세 혈관이 터져 출혈이 시작되면 한 팔을 아예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무사히 지켜주셨지만 혹여 어떤 상처를 입으면 출혈로 인해 몸의 한 지체를 잃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어 온 가족이 극도의 긴장 속에 사느라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페루만민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지교회 총지도교사)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손수건 기도를 받고 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보아왔기에 저도 손자와 함께 사모함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빠블로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있었기에 제 마음은 더욱더 간절했지요. 그날 손수건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의 다리를 살펴보니 심한 멍들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혈액응고 장애 증상도 모두 사라져 피부가 깨끗해져 있었지요. 기도받고 혈우병을 치료받아 정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자 빠블로와 에바 쿠냐나 성도 (페루만민교회)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어왔지만 제 손자가 체험하니 더욱 믿음이 되고 행복합니다. 빠블로의 치료를 통해 저희 가정은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원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층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